

부산·경남 1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개통 건의

2026. 02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부산·경남 1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개통 건의

I. 현황 및 문제점

-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경남 창원시 마산역을 연결하는 51.1km의 광역철도망으로, 부산·김해·창원 등 동남권 주요 도시를 30분대로 연결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임. 개통 시 부산·경남 주요 거점 지역 간 1시간대 생활권 형성과 동남권 경제권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임
- 그러나 당초 2020년 6월 완공 예정이었던 본 사업은 2020년 3월 낙동1터널 지반침하 사고 이후 복구 및 피난연결통로 설치 문제로 5년 이상 개통이 지연되고 있음. 현재 공정률은 99%에 달하였음에도 전면개통 시기는 2026년 12월로 추가 연기되었으며, 조기개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수도권은 GTX노선으로 경기 외곽까지 30분대에 연결하며 광역 경제권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호재와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동남권의 핵심 광역철도 사업인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은 기존 계획마저 5년째 지연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장기간의 개통 지연은 경남도민을 비롯한 동남권 주민들에게 일상적 교통 불편을 야기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가시화 시키고 있음. 김해·창원 국가산업단지는 한국 제조업의 중추로서 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및 부품 등 핵심 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광역철도망의 부재로 인해 물류·통근 환경이 도로에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현재 창원과 부산을 잇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는 출퇴근 승용차와 산업 물류 차량이 뒤엉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물류비와 근로자들의 교통비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도로 정체로 인해 길바닥에 버려지는 사회적 비용(교통혼잡비용)은 연간 약 75조 원에 달하며, 이는 기업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잠식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됨.
-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될 경우, 창원~부산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존 승용차 수요의 상당수가 철도로 전환될 것임.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하여 고속도로의 여유 용량이 확보되면, 화물차의 주행 속도가 향상되어 물류 배송의 정시성 확보와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절감이 가능해짐.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구조 속에서 기술적 이견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증과 법적 책임 소재 논의로 인해 완공 일자만 점점 미뤄지고 있음. 이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유무형의 손실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전가되고 있음.
- 수도권 교통 인프라에는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반면, 비수도권인 동남권의 핵심 사업은 멈춰 있는 현실은 명백한 정책 불균형임. 비수도권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임
- 특히, 현재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중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부 구간은 설비와 역사가 운영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전면개통을 위한 쟁점 해결에 박차를 가하되, 부분개통만으로도 출퇴근 수요 분산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라는 즉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전면개통 시점까지 모든 운영 준비를 중단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자산 낭비이자 지역민의 불편함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II. 건의

-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통 편의 확충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완전한 전면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관련 쟁점을 조속히 해결해주시고,
- 전면 개통까지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설물 공사가 이미 완료된 진례신호소~강서금호역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

2026년 2월 2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성 두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홍 재 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황 태 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창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노 은 식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주 보 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종 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점 수